

완도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박물관 관련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 이어져 신우철 군수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완도군과 전라남도도는 2월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전략을 마련하고 박물관 활성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국내 박물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먼저 국립해양박물관 백승욱 전문위원의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이형기 학예연구관의 ‘국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박물관학회 윤태석 이사의 ‘최근 박물관 동향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방향’, 국립민속박물관 김창

일 학예연구사의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시 콘텐츠’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백승욱 전문위원은 “해상왕 장보고는 글로벌 안목의 소유자이며 세계적 반열의 인물로 그가 가진 소프트 파워 리더십이 인심을 움직이게 했다”면서 “박물관에 장보고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형기 연구관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수산 관련 문화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태석 이사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해양수

산, 문화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김창일 학예연구사는 “어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어구와 사진, 영상 등을 전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운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와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 시설 구성, 수산 자원의 소비·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완도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우리 완도가 해양수산 대표 도시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중앙부처, 전라남도도와 협력하여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설립 타당성 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해 박물관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절차로는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와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 2024년 3월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 수강생 84명 대상...마케팅 이론 및 현장견학 등 10회 운영

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3년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이영래 사무총장이 '성공 농업'을 위한 최신 농업 트렌드'라는 주제로 농특산물 유통의 변화를 설명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첫 강의의 문을 열었다.

개강식에 참석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유통과 저장,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로

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특산물 마케팅대학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마케팅 이론 강의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총 10회 진행된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모집해 올해 84명이 수강을 등록했다.

총 교육시간 중 70%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유통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택배비 지원액 상향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지역소멸대응 맞춤형 건강관리...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 유지”



해남군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으로, 해남군은 지난해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비전 아래 10개 전략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사업은 2022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지역소멸대응기금 3억6,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주민과 밀착한 보건진료소 권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인지 활동 등 건강행태를 개선해 혼자라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거주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운동, 영양, 인지개선 등 3개 분야로,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운동 주2회, 영양과 인지개선은 각각 주1회씩 총 16주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기초건강검사와 건강행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1,080명 중 46.7%인 504명이 혈압·당뇨 등 건강 이상이 있었으며, 특히 노인 영양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양 교육과 식이 지도를 건강행태 개선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건강이상 소견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주기적 관리를 실시하고, 이중 고혈압·당뇨질환자 118명에게는 경동맥 초음파, 안과 검사 등 합병증 예방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웰다잉에 대한 주민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거주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진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체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로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540-3410)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준은 내국인·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이며, 당일 관광일 경우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식을 이용 시 1인당 7,000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1박 2일은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2식 이용 시 15,000원 ▲2박 3일은 관광은 유료관광지 2개소와 관내 음식점

3식을 이용하면 25,000원을 지원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찾아서 머무는 관광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2023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